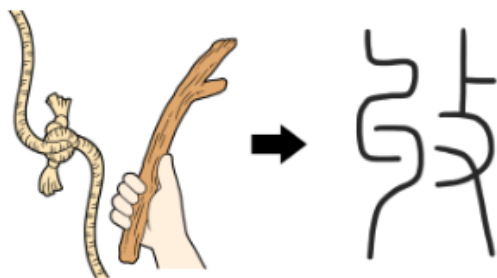


121

회의문자 ⓘ



收

거둘 수

收자는 '거두다'나 '잡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收자는 ㄴ(엷힐 구)자와 攵(칠 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ㄴ자는 줄이 엉킨 모습을 그린 것으로 '엷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줄이 엉킨 모습을 그린 ㄴ자에 攵자가 결합한 收자는 뭉둥이(攵)로 죄인을 잡아 줄(ㄴ)로 포박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잡다'라는 뜻은 사라지고 '들이다'나 '거두다'라는 뜻만 남게 되었다.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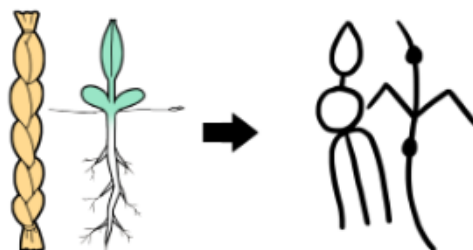
소전

收

해서

회의문자 ⓘ

122



純

순수할
순

純자는 ‘순수하다’나 ‘순박하다’, ‘진실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純자는 系(가는 실 사)자와 屯(진 칠 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屯자는 파랄게 올라오는 초목을 그린 것으로 이전에는 ‘순수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屯자가 ‘진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금문에서는 여기에 系자를 더한 純자가 ‘순수하다’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누에고치에서 뽑은 희고 반짝이는 비단도 순수함을 연상케 하니 系자와 屯자의 결합은 매우 적절한 비유로 보인다.

 $\frac{m}{n}$

結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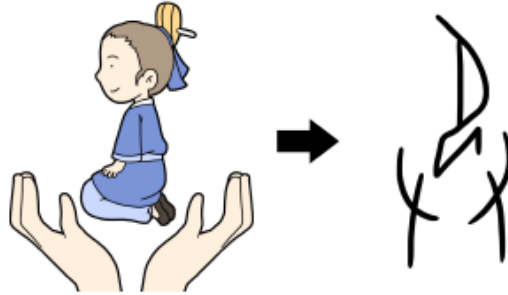
소전

純

해서

4(2)
-
123

회의문자 ①



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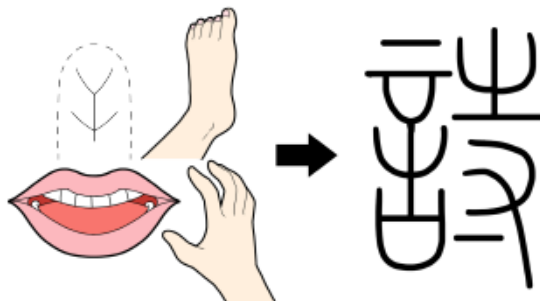
이을 승

承자는 '받들다'나 '계승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承자는 手(손 수)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손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글자의 형태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承자의 갑골문을 보면 양손을 뜻하는 升(받들 공)자가 艮(병부 절)자를 떠받드는 𠂇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承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을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에서 '받들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소전에서는 여기에 手자가 더해지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4(2)
-
124

회의문자 ①



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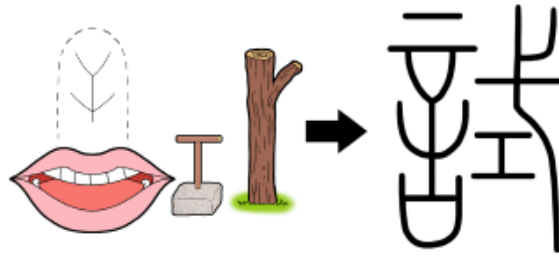
시 시

詩자는 '시'나 '시경'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詩자는 言(말씀 언)자와 寺(절 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寺자는 '절'이나 '사찰'을 뜻하는 글자이다. '시'는 글로 남기지만 말로 읊조리기도 했으니 言자가 의미요소로 쓰였다. 사찰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 불경을 읽곤 한다. 이때는 운율에 맞춰 불경을 읽는데, 詩자에 쓰인 寺자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詩자는 사찰(寺)에서 불경을 읊는 소리(言)를 '시'에 비유해 만들어진 글자로 해석된다.

소전	해서

4(2)
-
125

형성문자①



試

시험
시(:)

試자는 '시험하다'나 '검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試자는 言(말씀 언)자와 式(법 식)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式자는 건물 따위를 공사할 때 규칙대로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법식'이나 '제도'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규칙이라는 뜻을 가진 式자에 言자를 더한 試자는 본래 규칙을 관리 감독한다는 뜻이었다. 이러한 의미가 확대되면서 지금은 '검증하다'나 '비교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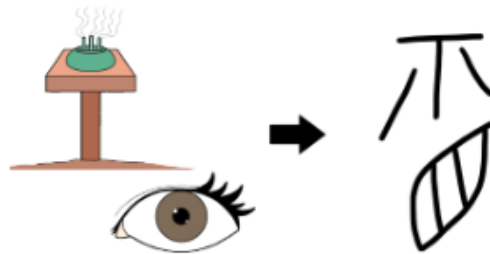
소전

試

해서

4(2)
-
126

회의문자①



視

볼 시:

視자는 '보다'나 '보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視자는 示(보일 시)자와 見(볼 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서는 示자와 目(눈 목)자가 𠄎 합한 형태였다. 여기서 示자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그린 것으로 '보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이다'라는 뜻을 가진 示자에 目자가 결합한 視자는 '신이 보이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단순한 의미에서의 '보다'나 '~로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𠄎

갑골문

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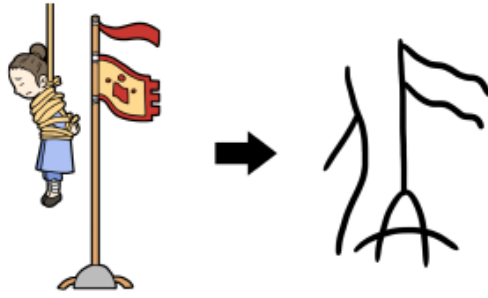
소전

視

해서

4(2)
-
127

상형문자①



施

베풀 시:

施자는 '베풀다'나 '실시하다', '드러내다', '쏟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施자는 𡗗(나부길 언)자와 也(어조사 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여기서 也자는 '야→시'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施자의 갑골문을 보면 사람을 줄에 매달아 놓은 모습이 𡗗 그려져 있었다. 고대에는 적의 시신을 창에 매달아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곤 했다. 施자는 그러한 모습을 그린 것이다. 금문에서는 也자가 발음요소로 쓰이면서 지금의 施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施자에 '드러내다'나 '쏟내다'라는 뜻이 있는 것도 적들에게 아군의 용맹성을 표현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𡗗

갑골문

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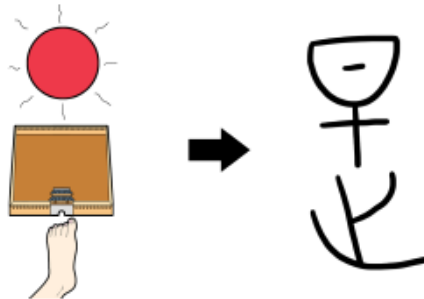
소전

施

해서

4(2)
-
128

회의문자①



是

이[斯]/을
을 시:

是자는 '옳다', '바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是자는 日(해 일)자와 正(바를 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正자는 성(城)을 향해 진격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바르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바르다'라는 뜻을 가진 正자와 日자가 결합한 是자는 '태양(日)은 올바른 주기로 움직인다(正)'는 뜻이다. 즉 是자는 태양은 일정한 주기로 뜨고 진다는 의미에서 '올바르다'와 '옳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으로 해석한다. 是자는 때로는 '이것'이나 '무릇'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어 쓰이기도 한다.

是

금문

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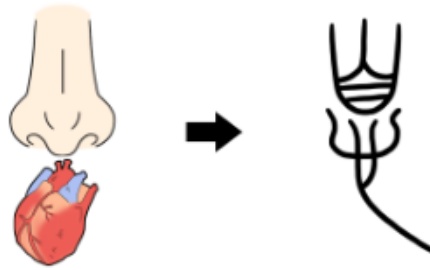
소전

是

해서

4(2)
-
129

회의문자 ①



息

쉴 식

息자는 '숨 쉬다'나 '호흡하다', '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息자는 自(스스로 자)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自자는 사람의 코를 그린 것이다. 호흡은 공기가 코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니 息자는 코(自)와 심장(心)을 함께 그려 '숨쉬다'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라 할 수 있다.



금문



소전



해서

4(2)
-
130

상형문자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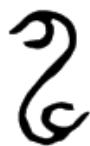
申

납[猿]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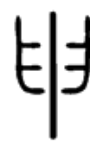
申자는 '펴다'나 '베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申자는 田(밭 전)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밭'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申자의 갑골문을 보면 번개가 내려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옛사람들은 번개가 하늘의 신과 관계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申자는 '하늘의 신'이라는 뜻으로도 쓰였었다. 하지만 후에 申자가 번개가 펼쳐지는 모습에서 '펴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자 여기에 그린 示(보일 시)와 결합한 神(귀신 신)자가 '신'이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